

고교 유형별 중·고교 사교육 실태 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¹⁾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

I. 서론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기간 및 방법

II. 본론

1. 진학 희망 고교별 중학교 사교육 실태
2. 고교 유형별 고등학교 사교육 실태
3. 고교유형에 대한 일반고 교사의 인식

III. 결론 및 제언

1)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 양신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I. 서론

1. 조사 목적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이후 고교체제의 서열화가 심화되었고, 더욱 심해진 서열화가 사교육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은 있어 왔으나 그에 대한 연구 조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 종류에 따라 △사교육의 유형, △사교육 받는 과목, △사교육 비용과 시간, △사교육의 선행 수준 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고교 유형에 따라 위의 항목들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고교체제에 대한 일반고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고교체제의 영향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 중3 대상 설문 : 총 38개 중학교 학교당 2학년 학급당 30명씩 = 2280명

구분	지역		중학교명
사교육 과열지구 중학교 (20개교)	서울	강남·송파	가락중, 대청중, 대명중
		양천	목운중, 월촌중, 신목중 (대원국제중-광진)
		노원	하계중, 불암중, 을지중 (영훈국제중-강북)
	경기	안양 평촌	귀인중, 평촌중, 범계중
		성남 분당	수내중, 내정중, 서현중
비교군 일반 중학교 (18개교)	서울	구로	경인중, 영서중, 구일중
		금천	난곡중, 가산중, 시흥중
		강북	번동중, 수유중, 장위중
	경기	읍면단위	중3학생수 60명 이상 학교 무작위 9개교

- 학급선정은 첫 번째 학급과 마지막 학급 (예: 10반 까지 있는 경우, 1반과 10반)
-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운동부 학생은 제외시킴
-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을 사교육과열지구 중학교에 포함시켜 조사함

□ 고1 대상 설문 : 총 80개 고등학교 1학년 1학년씩 학급당 30명 = 2400명

구분	서울	경기	그 외 지역	합계
일반고	강동고 경신고 구암고 구일고 독산고 면목고 삼성고 상계고 서문여고 양재고 영동고 영등포여고 자양고 장충고 진관고 청량고 해성여고 (총17교)	가운고 가평고 계남고 과천중앙고 광남고 광명고 광주고 군포고 야탑고 봉일천고 반송고 백석고 불곡고 사우고 산본고 시흥고 오산고 동광고 소하고 송탄고 수원고 구리고 안법고 정왕고 주엽고 퇴계원고 포천고 하남고 경화여고 수지고 호평고 백운고 광주중앙고 (총33교)	-	50개교
자사고	세화고, 이화여고, 중앙고, 한가람고, 보인고, 휘문고, 양정고, 하나고 (총8교)	안산동산고, 용인외고 (총2교)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5) 김천고 북일고 하늘고 (3): (총8교)	18개교
외 고 / 국제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이화외고, 대일외고(4) 서울국제고(1): (총5교)	고양외고, 경기외고, 김포외고(3) 청심국제고(1): (총4교)	-	9개교
과 고 / 영재고	한성과학고(1), 서울과학고(1): (총2교)	경기북과학고(1)	-	3개교

- 학급선정은 첫 번째 학급
-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운동부 학생은 제외시킴

□ 일반고 교사 대상 설문 : 50개교 20명씩 = 1000명

- 고1대상 설문을 실시한 일반고 대상

□ 최종 설문 대상

- 중3 대상 설문 : 총 38개 중학교 3학년 학생 2273명 설문지 취합
- 고1 대상 설문 : 총 80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769명 설문지 취합
- 일반고 교사 대상 설문 : 50개 고등학교 1105명 설문지 취합

3. 조사기간 및 방법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의원 유기홍 의원실(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 공동으로 2013년 9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

II. 본론

1. 진학 희망 고교별 중학교 사교육 실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교육 참여율, 과목, 비용, 시간 등을 조사하고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1) 사교육 참여율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다. 전체 2273명 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은 74.2%였으며, 지역별로 나눠보면 사교육 과열지구 학생은 84.6%, 그 외 지역의 학생은 62.9%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사교육 참여율은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표1〉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율(중3대상)

단위: %(명)

		현재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전체
		예	아니오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과학고/영재학교	72.9%(35)	27.1%(13)	100.0%(48)
	외국어고/국제고	89.8%(115)	10.2%(13)	100.0%(128)
	예술고/체육고	53.4%(55)	46.6%(48)	100.0%(10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51.4%(148)	48.6%(140)	100.0%(288)
	구 자립형사립고	79.1%(34)	20.9%(9)	100.0%(43)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86.5%(32)	13.5%(5)	100.0%(37)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83.2%(109)	16.8%(22)	100.0%(131)
	자율형공립고	71.2%(52)	28.8%(21)	100.0%(73)
	일반고	77.3%(980)	22.7%(288)	100.0%(1268)
기타	59.6%(28)	40.4%(19)	100.0%(47)	
전체	73.3%(1588)	26.7%(578)	100.0%(2166)	

일반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77.3%)에 비해 외고/국제고(89.8%), 구 자립형 사립고(79.1%), 비평준화지역 자사고(86.5%), 평준화지역 자사고(83.2%)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외고/국제고와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희망 학생들이 일반고 희망 학생들에 비해 10% 정도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고1을 대상으로 중3 때 사교육을 받았던 비율을 조사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반고 학생들은 69.7%가 중3때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외고/국제고는 84.4%, 과고/영재고는 86.2%, 자사고는 79.4~87.5%가 중3 때 사교육을 받았다고 답하여 과고, 외고, 자사고 등이 일반고에 비해 10% 이상 높은 사교육 참여율을 보였다.

〈표2〉 고교 유형별 중3 때 사교육을 받은 비율(고1대상)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기타	전체
		중3 당시 교과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86.2%	84.4%	50.0%	100%	79.4%	80.1%	87.5%	67.7%	69.7%
	아니오	13.8%	15.6%	50.0%	0.0%	20.6%	19.9%	12.5%	32.3%	30.3%	66.7%	25.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이러한 결과는 현 고교체제의 서열화에 기반 하여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교육이 유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1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평준화지역 자사고 학생들이 중3 때 가장 많은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자사고가 미치는 사교육의 영향이 큼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교육 참여 시간

사교육 참여 시간에 있어서도 희망 고교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시간을 조사한 결과, 과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의 희망학생들은 14시간 이상의 사교육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고나 자율형 공립고는 2~4시간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많은 양의 사교육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참여 시간

		일주일 평균 사교육을 받는 시간							전체	
		2시간 미만	2~4 시간	4~6 시간	6~8 시간	8~10 시간	10~12 시간	12~14 시간		14시간 이상
희망 고교	과학고/영재학교	6	4	3	0	2	1	3	16	35명
		17.1%	11.4%	8.6%	0.0%	5.7%	2.9%	8.6%	45.7%	100.0%
	외국어고/국제고	3	21	9	11	11	15	16	30	116명
		2.6%	18.1%	7.8%	9.5%	9.5%	12.9%	13.8%	25.9%	100.0%
	예술고/체육고	4	15	7	4	10	1	4	10	55명
		7.3%	27.3%	12.7%	7.3%	18.2%	1.8%	7.3%	18.2%	100.0%
	특성화고/마이스터고	20	47	26	10	10	10	9	15	147명
		13.6%	32.0%	17.7%	6.8%	6.8%	6.8%	6.1%	10.2%	100.0%
	구 자립형 사립고	0	7	3	2	3	6	2	10	33명
		0.0%	21.2%	9.1%	6.1%	9.1%	18.2%	6.1%	30.3%	100.0%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0	11	3	1	0	4	2	11	32명
		0.0%	34.4%	9.4%	3.1%	0.0%	12.5%	6.3%	34.4%	100.0%
	평준화지역 자사고	6	19	11	15	10	7	14	26	108명
		5.6%	17.6%	10.2%	13.9%	9.3%	6.5%	13.0%	24.1%	100.0%
	자율형 공립고	3	14	6	6	3	4	5	11	52명
		5.8%	26.9%	11.5%	11.5%	5.8%	7.7%	9.6%	21.2%	100.0%
	일반고	63	269	144	82	74	91	72	178	973명
		6.5%	27.6%	14.8%	8.4%	7.6%	9.4%	7.4%	18.3%	100.0%
	기타	3	5	3	6	4	0	2	4	27명
	11.1%	18.5%	11.1%	22.2%	14.8%	0.0%	7.4%	14.8%	100.0%	
전체	108	412	215	137	127	139	129	311	1578명	
	6.8%	26.1%	13.6%	8.7%	8.0%	8.8%	8.2%	19.7%	100.0%	

위의 표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다시 정리해 보면 희망 고교에 따른 사교육 시간의 현황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반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자사고, 외국고/국제고, 과고/영재고 순으로 갈수록 사교육 참여 시간이 늘어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 10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에서는 30%대였으나, 자사고와 외국고, 과고 희망에서는 50%이상이었다.

〈표4〉 희망 고교 유형별 주당 10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희망 고교 유형	주 10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일반고	35.1%
자율형 공립고	38.5%
자율형 사립고(세가지 유형 합산)	50.5%
외국어고/국제고	52.6%
과학고/영재학교	57.2%

3)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월 평균 사교육비도 고교 유형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표5〉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중3대상)

		월평균 사교육비(학원, 온라인강좌, 과외, 학습지 등)					전체	
		15만원미 만	15~30만원	3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이상		
희망 고교	과학고/영재학교	4	3	5	9	7	6	34명
		11.8%	8.8%	14.7%	26.5%	20.6%	17.6%	100.0%
	외국어고/국제고	1	10	21	50	22	10	114명
		0.9%	8.8%	18.4%	43.9%	19.3%	8.8%	100.0%
	예술고/체육고	6	13	17	11	7	1	55명
		10.9%	23.6%	30.9%	20.0%	12.7%	1.8%	100.0%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5	52	51	18	5	1	142명
		10.6%	36.6%	35.9%	12.7%	3.5%	.7%	100.0%
	구 자립형 사립고	0	5	3	15	6	5	34명
		0.0%	14.7%	8.8%	44.1%	17.6%	14.7%	100.0%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1	2	7	12	6	4	32명
		3.1%	6.3%	21.9%	37.5%	18.8%	12.5%	100.0%
	평준화지역 자사고	1	10	24	40	18	13	106명
		0.9%	9.4%	22.6%	37.7%	17.0%	12.3%	100.0%
	자율형 공립고	5	10	17	16	3	0	51명
		9.8%	19.6%	33.3%	31.4%	5.9%	0.0%	100.0%
	일반고	41	172	321	304	95	31	964명
		4.3%	17.8%	33.3%	31.5%	9.9%	3.2%	100.0%
	기타	5	3	5	6	3	2	24명
	20.8%	12.5%	20.8%	25.0%	12.5%	8.3%	100.0%	
전체	79	280	471	481	172	73	1556명	
	5.1%	18.0%	30.3%	30.9%	11.1%	4.7%	100.0%	

월평균 사교육비에 있어서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30~50만 원 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자사고, 외국고, 과고 희망 학생들은 50~100만 원 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중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만 떼어 놓고 보면, 고교 체제로 인한 사교육비의 증가 실태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은 일반고 희망 학생 중에서는 13% 정도였으나, 자사고나 과고 희망 학생들은 30% 대의 비율을 보였다.

〈표6〉 희망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 지출 학생 비율

희망 고교 유형	월평균 사교육비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학생 비율
일반고	13.1%
자율형 사립고(세가지 유형 합산)	31.0%
외국어고/국제고	28.1%
과학고/영재학교	38.2%

고교 유형에 따른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1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그 내용이 확인되었다. 일반고의 경우 30-50만 원 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고, 외고, 자사고 등은 50-100만 원 대의 월평균 사교육비 비율이 가장 높아, 특목고나 자사고가 더 높은 사교육비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7〉 고교 유형별 중3학년 2학기 월평균 사교육비(고1대상)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평준화지역자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기타	전체
	5	20	1	0	8	5	15	3	46	0	
15만원 미만	10.2%	9.3%	33.3%	0.0%	6.7%	4.7%	5.9%	7.3%	3.9%	0.0%	5.2%
15~30만원	8.2%	12.6%	33.3%	0.0%	21.7%	24.3%	9.8%	19.5%	26.4%	0.0%	21.8%
30~50만원	12.2%	31.6%	33.3%	100%	24.2%	31.8%	25.9%	56.1%	41.0%	50.0%	36.2%
50~100만원	55.1%	35.8%	0.0%	0.0%	32.5%	30.8%	45.1%	14.6%	22.4%	0.0%	28.4%
100~150만원	10.2%	7.4%	0.0%	0.0%	11.7%	8.4%	9.8%	2.4%	4.7%	50.0%	6.4%
150만원 이상	4.1%	3.3%	0.0%	0.0%	3.3%	.0%	3.5%	0.0%	1.7%	0.0%	2.1%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와 같이 고교 서열 체제로 인해 중학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은 현 고교체제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선행학습 유발

고등학교 진학 전에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진학 희망 학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 중에서는 70%대의 학생들이 고교 진학 전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사고나 외고/국제고 진학 희망 학생들은 90%대의 학생들이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의 학교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속진 교육과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8〉 희망 고교 유형별 선행학습 필요 인식 비율(중3대상)

단위: %(명)

		진학 희망 학교의 공부를 위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예	아니오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과학고/영재학교	83.3%(40)	16.7%(8)	100.0%(48)
	외국어고/국제고	92.2%(119)	7.8%(10)	100.0%(129)
	예술고/체육고	60.2%(62)	39.8%(41)	100.0%(103)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2.1%(177)	37.9%(108)	100.0%(285)
	구 자립형사립고	90.7%(39)	9.3%(4)	100.0%(43)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91.9%(34)	8.1%(3)	100.0%(37)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87.7%(114)	12.3%(16)	100.0%(130)
	자율형공립고	76.7%(56)	23.3%(17)	100.0%(73)
	일반고	75.6%(954)	24.4%(308)	100.0%(1262)
기타	55.3%(26)	44.7%(21)	100.0%(47)	
전체		75.2%(1621)	24.8%(536)	100.0%(2157)

중학생들이 느끼는 고교 입학 전 선행학습 부담은 수학 과목을 따로 떼어서 조사했을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진학 희망 고등학교와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9〉 희망 고교 유형별 수학 선행학습 필요 인식 정도(중3대상)

		고교 입학 전 어느 정도까지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	
		수학·상	수학·하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선행학습 필요 없음
희망 고교	과학고/영재학교	6	2	5	6	3	3	17	5	47
		12.8%	4.3%	10.6%	12.8%	6.4%	6.4%	36.2%	10.6%	100.0%
	외국어고/국제고	10	23	39	10	25	8	7	6	128
		7.8%	18.0%	30.5%	7.8%	19.5%	6.3%	5.5%	4.7%	100.0%
	예술고/체육고	18	12	22	5	4	1	3	34	99
		18.2%	12.1%	22.2%	5.1%	4.0%	1.0%	3.0%	34.3%	100.0%
	특성화고/마이스터고	61	35	43	25	17	4	5	94	284
		21.5%	12.3%	15.1%	8.8%	6.0%	1.4%	1.8%	33.1%	100.0%
	구 자립형 사립고	3	4	13	3	6	2	8	4	43
		7.0%	9.3%	30.2%	7.0%	14.0%	4.7%	18.6%	9.3%	100.0%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0	4	7	5	13	1	4	3	37
		0.0%	10.8%	18.9%	13.5%	35.1%	2.7%	10.8%	8.1%	100.0%
	평준화지역 자사고	11	18	38	15	25	4	10	8	129
		8.5%	14.0%	29.5%	11.6%	19.4%	3.1%	7.8%	6.2%	100.0%
	자율형 공립고	14	10	22	5	6	1	3	10	71
		19.7%	14.1%	31.0%	7.0%	8.5%	1.4%	4.2%	14.1%	100.0%
일반고		290	203	300	83	114	25	44	189	1248
		23.2%	16.3%	24.0%	6.7%	9.1%	2.0%	3.5%	15.1%	100.0%
기타		5	2	8	3	5	0	0	24	47
		10.6%	4.3%	17.0%	6.4%	10.6%	0.0%	0.0%	51.1%	100.0%
전체		418	313	497	160	218	49	101	377	2133
		19.6%	14.7%	23.3%	7.5%	10.2%	2.3%	4.7%	17.7%	100.0%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상) 정도의 선행학습을 필요로 느끼고 있으며, 많아야 고2학년 1학기 과정인 수학I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은 이미 고2학년 1학기 과정인 수학I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고교 수학의 마지막 과정인 기하와 벡터 과목까지 생각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더욱이 외국어 특성화학교인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들마저도 고2정도의 수학을 미리 공부하고 가야한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수학 과목이 대학입시에서 지나치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수학 선행학습을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상 수학(상), 수학(하)를 고1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수학I 이상의 과정, 즉 고2 과정 이상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별도로 합산

하면 고교 유형에 따른 수학 선행학습 유발의 정도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표10〉 희망 고교 유형별 고2이상의 수학 선행학습 필요를 느끼는 학생 비율

희망 고교 유형	고2이상의 수학 선행학습(수학I-기하와 벡터) 필요를 느끼는 학생 비율
일반고	45.3%
자율형 사립고(세가지 유형 합산)	75.6%
외국어고/국제고	69.6%
과학고/영재학교	72.4%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고보다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의 진학 희망 학생들이 수학 선행 학습에 대한 속도나 분량에서의 압박을 훨씬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고 희망 학생들도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고2 이상의 수학 선행학습을 필요로 느낀다는 점도 큰 문제이며,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 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1년을 초과하는 선행학습의 필요를 느낀다는 것은 수학 교육과정이나 입시 수학의 운영에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고2 이상의 수학 선행학습 필요를 느끼는 학생 비율이 외고, 과고 보다 자사고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사고가 서열화된 고교체제 상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속진 교육과정 운영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역시 고1대상 설문조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등학교 입학전 고등학교 수학을 미리 공부한 비율은 일반고 학생이 66.2%, 과고/영재고가 89.7%, 외고/국제고가 84.7%, 자사고가 84.3~88.1%로 나타났다.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의 차이가 중3대상 조사에서보다 더 벌어져 2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고 학생의 3분의2, 특목고/자사고 학생의 90% 가까이가 수학 선행 학습을 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표11〉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 현황(고1대상)

		과학 고/ 영재 학교	외국 어고 /국 제고	예술 고/ 체육 고	특성 화고 /마 이스 터고	구자 립형 사립 고	비평 준화 지역 자율 형사 립고	평준 화지 역자 율형 사립 고	자율 형공 립고	일반 고	기타	전체
고교 입학 전 수학에 대해서 미리 공부했습니까?	예	52 89.7%	222 84.7%	3 50.0%	2 100.0%	132 85.7%	113 84.3%	258 88.1%	38 64.4%	1125 66.2%	3 60.0%	1948 72.9%
	아니오	6 10.3%	40 15.3%	3 50.0%	0 0.0%	22 14.3%	21 15.7%	35 11.9%	21 35.6%	575 33.8%	2 40.0%	725 27.1%
전체		58 100.0%	262 100.0%	6 100.0%	2 100.0%	154 100.0%	134 100.0%	293 100.0%	59 100.0%	1700 100.0%	5 100.0%	2673 100.0%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을 한 고1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간에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어, 특목고/자사고가 학생들의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고교 입학 전 수학 선행학습 정도(고1대상)

		과학 고/ 영재 학교	외국 어고 /국 제고	예술 고/ 체육 고	특성 화고 /마 이스 터고	구자 립형 사립 고	비평 준화 지역 자율 형사 립고	평준 화지 역자 율형 사립 고	자율 형공 립고	일반 고	기타	전체
수학-상	8 15.7%	79 35.7%	2 66.7%	1 100%	39 30.5%	38 33.9%	107 42.0%	35 89.7%	822 74.8%	1 33.3%	1132 59.2%	
	6 11.8%	78 35.3%	0 0.0%	0 0.0%	31 24.2%	25 22.3%	62 24.3%	4 10.3%	151 13.7%	1 33.3%	358 18.7%	
수학-하	10 19.6%	52 23.5%	0 0.0%	0 0.0%	28 21.9%	30 26.8%	53 20.8%	0 0.0%	80 7.3%	1 33.3%	254 13.3%	
	4 7.8%	8 3.6%	0 0.0%	0 0.0%	7 5.5%	1 0.9%	3 1.2%	0 0.0%	8 0.7%	0 0.0%	31 1.6%	
수학I	12 23.5%	2 0.9%	0 0.0%	0 0.0%	15 11.7%	6 5.4%	21 8.2%	0 0.0%	16 1.5%	0 0.0%	72 3.8%	
	1 2.0%	0 0.0%	0 0.0%	0 0.0%	1 0.8%	1 0.9%	4 1.6%	0 0.0%	4 0.4%	0 0.0%	11 0.6%	
기하와	10	2	0	0	7	9	4	0	5	0	37	

백터	19.6%	.9%	0.0%	0.0%	5.5%	8.0%	1.6%	0.0%	.5%	0.0%	1.9%
선행 학습 하지 않음	0 0.0%	0 0.0%	1 33.3%	0 0.0%	0 .0%	2 1.8%	1 .4%	0 0.0%	13 1.2%	0 0.0%	17 0.9%
전체	51 100%	221 100%	3 100%	1 100%	128 100%	112 100%	255 100%	39 100%	1099 100%	3 100%	1912 100%

5) 학교 진학 스트레스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의 정도 역시 고교 유형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이 진학에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받는와 매우 많이 받는다 합산)은 49.0%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 반해, 자사고의 경우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구 자립형 자사고 66.7%,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70.3%)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들의 진학 스트레스는 87.6%에 달했다.

〈표13〉 희망 고교 유형별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단위: %(명)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전체
		아니오 (전혀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편이다)	예 (받고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받는다)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과학고/영재학교	52.1%(25)	47.9%(23)	100.0%(48)
	외국어고/국제고	12.4%(16)	87.6%(113)	100.0%(128)
	예술고/체육고	30.4%(31)	69.6%(72)	100.0%(10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0.1%(115)	59.9%(172)	100.0%(287)
	구 자립형사립고	33.3%(14)	66.7%(28)	100.0%(42)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29.7%(11)	70.3%(28)	100.0%(37)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45.4%(59)	54.6%(71)	100.0%(130)
	자율형공립고	48.0%(35)	52.0%(38)	100.0%(73)
	일반고	51.0%(643)	49.0%(617)	100.0%(1260)
기타	43.5%(20)	56.5%(26)	100.0%(46)	
전체		45.0%(969)	55.0%(1185)	100.0%(2154)

2. 고교 유형별 고등학교 사교육 실태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났다. 일

반고에 비해 자사고 외고, 과고 등의 학교에서 사교육의 분량과 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교 체제가 학교 교육력 경쟁보다는 학습량과 서열 강화를 통한 경쟁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진학 동기

고1학생들에게 자신이 진학한 고교로의 진학 동기를 설문한 결과, 고교 유형별로 다른 모습을 나타냈다.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절반 정도인 45.8%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답한 반면, 외고나 자사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과반수이상(외고/국제고 28.1%, 구자립형 사립고 65.8%, 평준화지역 자사고 59.3% 등)이 좋은 학습 분위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표14> 고교 유형별 진학 동기

	과학 고/ 영재 학교	외국 어고 /국 제고	예술 고/ 체육 고	특성 화고 /마 이스 터고	구자 립형 사립 고	비평 준화 지역 자율 형사 립고	평준 화지 역자 율형 사립 고	자율 형공 립고	일반 고	기타	전체
명문대학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14 24.6%	57 21.9%	0 0.0%	1 50.0%	24 15.5%	22 16.2%	37 12.5%	10 16.4%	163 9.4%	2 33.3%	330 12.2%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2 3.5%	5 1.9%	1 16.7%	0 0.0%	3 1.9%	5 3.7%	9 3.0%	6 9.8%	261 15.1%	1 16.7%	293 10.8%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13 22.8%	125 48.1%	1 16.7%	0 0.0%	102 65.8%	73 53.7%	176 59.3%	3 4.9%	144 8.3%	0 0.0%	637 23.5%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4 7.0%	16 6.2%	0 0.0%	0 0.0%	11 7.1%	19 14.0%	41 13.8%	11 18.0%	289 16.7%	0 0.0%	391 14.4%
특정분야에 대한 흥미가 있거나 전공 및 직업 선택을 위해서	21 36.8%	51 19.6%	2 33.3%	0 0.0%	7 4.5%	4 2.9%	7 2.4%	3 4.9%	82 4.7%	0 0.0%	177 6.5%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5.3%	6 2.3%	2 33.3%	1 50.0%	8 5.2%	13 9.6%	27 9.1%	28 45.9%	793 45.8%	3 50.0%	884 32.6%
전체	57	260	6	2	155	136	297	61	1732	6	271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	------	------	------	------	------

이는 고교 선택이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위주로 선택되기 보다는 입시 준비를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의 목적으로 선택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나아가 일반고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 사교육비 지출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학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에 있어서 일반고 학생들은 30-50만 원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과고/외고/자사고 학생들은 50만 원 이상의 지출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15> 고교 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비교

	과학 고/ 영재 학교	외국 어고 /국 제고	예술 고/ 체육 고	특성 화고 /마 이스 터고	구자 립형 사립 고	비평 준화 지역 자율 형사 립고	평준 화지 역자 율형 사립 고	자율 형공 립고	일반 고	기타	전체
15만원 미만	5 11.1%	3 1.5%	2 40.0%	0 .0%	8 15.1%	2 4.3%	6 2.4%	2 6.9%	47 4.5%	0 .0%	75 4.5%
15~30만원	4 8.9%	33 16.8%	1 20.0%	0 .0%	16 30.2%	9 19.1%	18 7.3%	5 17.2%	236 22.6%	0 .0%	322 19.3%
30~50만원	5 11.1%	61 31.0%	2 40.0%	0 .0%	18 34.0%	16 34.0%	59 24.0%	12 41.4%	392 37.5%	0 .0%	565 33.8%
50~100만원	17 37.8%	65 33.0%	0 .0%	0 .0%	9 17.0%	16 34.0%	97 39.4%	10 34.5%	283 27.1%	1 100%	498 29.8%
100~150만원	9 20.0%	27 13.7%	0 .0%	1 100%	2 3.8%	3 6.4%	55 22.4%	0 .0%	71 6.8%	0 .0%	168 10.1%
150만원 이상	5 11.1%	8 4.1%	0 .0%	0 .0%	0 .0%	1 2.1%	11 4.5%	0 .0%	17 1.6%	0 .0%	42 2.5%
전체	45	197	5	1	53	47	246	29	1046	1	167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	------	------	------	------	------	------	------	------	------	------

위의 표에서 월평균 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율을 따로 떼어서 정리하면 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표16〉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 50만 원 이상인 학생 비율

고교 유형	월평균 사교육비 50만 원 이상인 학생 비율
일반고	35.5%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66.3%
외국어고/국제고	50.8%
과학고/영재학교	68.9%

3) 선행학습 유발

고교 유형별로 선행학습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에서 현재 어느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반고에 비해 외고/과고/자사고 등의 학생들이 훨씬 더 선행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 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학 사교육의 진도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표17〉 고교 유형별 수학 선행학습 정도(고1대상 설문)

	과학고/영재학교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구자립형사립고	비평준화지역자율형사립고	평준화지역역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기타	전체
수학-상	5 12.2%	7 3.4%	0 .0%	0 .0%	1 1.9%	2 4.3%	5 2.0%	2 6.9%	75 7.2%	0 .0%	97 5.8%
수학-하	1 2.4%	129 63.2%	1 20.0%	1 100%	29 55.8%	8 17.0%	134 54.9%	20 69.0%	707 68.2%	1 100%	1031 62.1%
수학I	7 17.1%	45 22.1%	2 40.0%	0 .0%	14 26.9%	24 51.1%	61 25.0%	4 13.8%	83 8.0%	0 .0%	240 14.4%

미적분과 통계기본	0 .0%	4 2.0%	0 .0%	0 .0%	1 1.9%	1 2.1%	2 .8%	0 .0%	10 1.0%	0 .0%	18 1.1%
수학II	10 24.4%	1 .5%	0 .0%	0 .0%	1 1.9%	5 10.6%	17 7.0%	0 .0%	17 1.6%	0 .0%	51 3.1%
적분과 통계	1 2.4%	0 .0%	0 .0%	0 .0%	0 .0%	1 2.1%	7 2.9%	0 .0%	4 .4%	0 .0%	13 .8%
기하와 벡터	13 31.7%	0 .0%	0 .0%	0 .0%	0 .0%	1 2.1%	6 2.5%	0 .0%	5 .5%	0 .0%	25 1.5%
선행 학습하지 않음	4 9.8%	18 8.8%	2 40.0%	0 .0%	6 11.5%	5 10.6%	12 4.9%	3 10.3%	136 13.1%	0 .0%	186 11.2%
전체	41 100%	204 100%	5 100%	1 100%	52 100%	47 100%	244 100%	29 100%	1037 100%	1 100%	1661 100%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학년인 고1에 해당하는 수학(하)를 사교육에서 공부하는 반면, 외고/과고/자사고의 경우 고1 과정도 포함되긴 하지만, 고2 이상의 과정을 상당수가 사교육에서 공부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고교 유형별로 고2이상의 과정(수학I~기하와 벡터)을 사교육에서 공부하는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8〉 고2과정 이상의 수학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고1대상 조사)

고교 유형	고2과정 이상의 수학(수학I~기하와 벡터)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일반고	11.5%
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38.2%
비평준화지역 자율형 사립고	68.0%
구 자립형 사립고	30.7%
외국어고/국제고	24.0%
과학고/영재학교	85.4%

4)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실태

공교육 교육과정과 무관한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비율도 고교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 과목 이상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고1학생 중 공인어학인증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반고에서는 8.0%에 그친 반면, 외고/국제고는 67.6%, 과고/영재고 16.3%, 자사고도 14.3~36.2%로 나타났다.

〈표19〉 고교 유형별 공인어학인증시험 준비 학생 비율

	과학 고/ 영재 학교	외국 어고 /국 제고	예술 고/ 체육 고	특성 화고 /마 이스 터고	구자 립형 사립 고	비평 준화 지역 자율 형사 립고	평준 화지 역자 율형 사립 고	자율 형공 립고	일반 고	기타	전체
공인어학인증시험(토플, 토플 이스트, 토플 이프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7	138	0	0	12	17	35	1	84	0	294
	16.3%	67.6%	.0%	.0%	22.6%	36.2%	14.3%	3.4%	8.0%	.0%	17.5%
전체	36	66	4	1	41	30	210	28	967	1	1384
	83.7%	32.4%	100.0%	100.0%	77.4%	63.8%	85.7%	96.6%	92.0%	100.0%	82.5%
	43	204	4	1	53	47	245	29	1051	1	167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학교 만족도

현재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습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고 학생 중 만족으로 답변한 학생은 60%에 머문 반면, 외고/과고/자사고의 학생들은 85~95%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고교 체제의 서열화로 인해 모든 학교가 동등하게 누려야 할 자원이 외고/과고/자사고로 편중됨으로써 일반고가 학습 분위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며, 일반고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극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20〉 고교 유형별 학교의 학습 분위기에 대한 만족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습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만족 (매우 만족, 어느 정도 만족)	불만족 (조금 불만족, 매우 불만족)	상관없음	
과학고/영재학교	95.6%(43)	4.4%(2)	0%(0)	100.0%(45)
외국어고/국제고	92.8%(192)	5.3%(11)	1.9%(4)	100.0%(207)
구 자립형사립고	90.2%(46)	9.8%(5)	0%(0)	100.0%(51)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85.7%(42)	14.3%(7)	0%(0)	100.0%(37)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86.7%(215)	10.9%(27)	2.4%(6)	100.0%(248)

자율형공립고	48.2%(14)	44.8%(13)	6.9%(2)	100.0%(29)
일반고	60.0%(628)	31.7%(332)	8.3%(87)	100.0%(1047)

3. 고교 유형에 대한 일반고 교사의 인식

현 고교 체제에 대한 일반고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일반고 교사들은 현재의 고교 체제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사고가 일반고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하였다.

1) 일반고 상황에 대한 인식

일반고 교사들은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정책이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자사고 정책이 일반고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답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87.7%의 일반고 교사가 동의했다.

문항1)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동의한다	444	40.2	40.3
	동의하는편이다	522	47.2	47.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12	10.1	10.2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23	2.1	2.1
합계	1101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4	
	합계	1105	100.0	

또, 일반고의 어려움이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1.8%의 일반고 교사가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즉,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어려워졌음을 대부분의 일반고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문항2) 지난 8월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후, 자율형 사립고 측에서는 일반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④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동의한다	28	2.5	2.6	2.6
	동의하는편이다	170	15.4	15.7	18.2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568	51.4	52.4	70.6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319	28.9	29.4	100.0
	합계	1085	98.2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0	1.8		
	합계	1105	100.0		

일반고 교사들 중에, 일반고가 고입 전형에서 다른 고교 유형보다 나중에 선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4.0%에 달했다. 이는 다른 학교들이 먼저 학생들을 선발하고 나중에 일반고 추첨을 함으로써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문항3) 현행 고교 입시 전형은 시기별로 전기, 후기로 나누어져 있고 후기에서도 우선 선발하는 자율형 공립고와 중점학교가 있고 마지막에 일반고가 학생을 추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다르게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공정하다 ② 공정한 편이다. ③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공정하지 않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공정하다	7	.6	.6	.6
	공정한편이다	168	15.2	15.3	15.9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580	52.5	52.8	68.8
	매우공정하지않다	343	31.0	31.2	100.0
	합계	1098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6		
	합계	1105	100.0		

2) 고교 유형에 대한 인식

일반고 교사들은 다양한 고교 유형에 대해 자사고와 외고는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과학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문항4)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필요하다	16	1.4	1.5	1.5
	필요한편이다	191	17.3	18.0	19.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18	46.9	48.8	68.3
	매우필요하지않다	336	30.4	31.7	100.0
	합계	1061	96.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4	4.0		
	합계	1105	100.0		

문항5)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필요하다	17	1.5	1.6	1.6
	필요한편이다	414	37.5	38.9	40.5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398	36.0	37.4	77.9
	매우필요하지않다	235	21.3	22.1	100.0
	합계	1064	96.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1	3.7		
	합계	1105	100.0		

문항6)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매우필요하다	131	11.9	12.4	12.4
	필요한편이다	654	59.2	61.8	74.1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82	16.5	17.2	91.3
	매우필요하지않다	92	8.3	8.7	100.0
	합계	1059	95.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6	4.2		
	합계	1105	10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고 교사의 77.3%가 자사고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외고에 대해서는 자사고에 비해서는 비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57.3%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과학고에 대해서는 71.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과고를 통한 과학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외고/자사고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반고 강화 방안에 대한 인식

일반고 교사들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일반고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지니고 있었다.

문항7)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②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③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595	53.8	54.5	54.5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14	19.4	19.6	74.2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282	25.5	25.8	100.0
	합계	1091	98.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4	1.3		
합계		1105	100.0		

문항8) 일반고가 개선된다면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
 ② 교육과정의 자율성 증대
 ③ 고등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입시 시기를 통일하는 것
 ④ 고등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선발 방법을 통일하는 것
 ⑤ 특목고(과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⑥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⑦ 기타 _____

		응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퍼센트	
일반고 개선에 중요한 영역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	462	20.8%	42.7%
	교육과정의 자율성 증대	371	16.7%	34.3%
	고등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입시 시기를 통일하는 것	295	13.3%	27.3%
	고등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선발 방법을 통일하는 것	313	14.1%	28.9%
	특목고(과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319	14.4%	29.5%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419	18.9%	38.7%
	기타	41	1.8%	3.8%
합계		2220	100.0%	205.2%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일반고 교사의 54.5%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일반고 교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재정적 지원(42.7%)과 자율고의 일반고 전환(38.7%)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설문 결과에서 보면,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하고 또 그 학교들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일반고를 준비하고 재학하는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도 훨씬 많이 하고 있으며, 선행학습 받는 비율 및 선행학습 정도도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목고, 자사고 등 다양한 고교들을 설립하여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완전히 실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인해 고액 사교육비를 유발시키고 심각한 정도의 선행학습을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목고, 자사고 설립이 공교육을 무력화하고 학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확인함에 따라 현행 고교 체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악화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학생 선발 방식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과 같이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권을 유지시키고 전기학교로 선발하는 등 정책적인 후퇴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자율형 사립고의 선발 방식을 선지원 후추첨 제도로 바꾸고, 선발 시기를 후기학교로 전환하는 등 자율형 사립고가 학생들의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일반고의 교육 여건을 악화하는 등의 폐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자율형 사립고에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부여함으로써 국영수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자율형 사립고의 지원하는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심각한 선행학습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10월 28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에서는 자율형 사립고에 현재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면서 국영수 시수에 대한 일반고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 명문고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역시 국영수 편성 단위 제한 등에 있어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해야 합니다.

3. 자사고, 외고·과고 재학생 및 해당 학교 진학 희망 중3생들의 사교육비 지출 및 사교육 참여, 선행 학습 정도 등에서 일반고에 비해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수직적 고교체제의 폐해를 반증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자사고 선발제도의 부분적 수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입학제도의 고교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은 성적 상위권 학생 위주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체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모든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고교체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설문지 - 중학교 3학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더 나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고교 정책과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정책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유기홍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A. 다음은 사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현재 교과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방과후, 보충수업, 예체능사교육 제외)

사교육이란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등 교과와 관련하여 개인과의 및 그룹과의, 보습학원, 어학학원, 입시학원, 전문학원, 온라인 강좌, 학습지 등을 돈을 내고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보충수업은 사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①로 답했을 경우 아래 1-1번 질문으로, ②로 답했을 경우 2번 질문으로.

1-1. 어떤 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개 응답가능)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과학 ⑤ 사회 ⑥ 독서·논술·토론 ⑦ 면접
⑧ 기타

1-2.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개 응답가능)

① 개인과의 ② 그룹과의 ③ 보습(내신)학원 ④ 수학전문학원
⑤ 영어전문학원 ⑥ 논술학원 ⑦ 특목고대비학원(일반학원 특목고반 포함)
⑧ 인터넷 강의

1-3. 일주일 평균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④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⑤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⑥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⑦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⑧ 14시간 이상

1-4. 평소 하루의 사교육을 마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 오후 5시 이전 ② 오후 5시 - 저녁 7시 이전 ③ 저녁 7시 - 밤 9시 이전
 ④ 밤 9시 - 11시 이전 ⑤ 밤 11시 이후

1-5. 일주일에 사교육을 평균 며칠이나 받습니까?

-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⑥ 6일 ⑦ 7일

1-6. 학원, 온라인 강좌, 과외, 학습지 등 포함하여 사교육비로 대략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합니까? (예체능 및 컴퓨터, 학교 방과후 교육비는 제외)

- ① 15만원 미만 ②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⑥ 150만원 이상

1-7.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서 본인은 어느 수준에 맞추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1 ③ 중2 ④ 중3 ⑤ 고1 ⑥ 고2 ⑦ 고3 ⑧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1-8.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서 본인은 어느 수준에 맞추어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1 ③ 중2 ④ 중3 ⑤ 고1 ⑥ 고2 ⑦ 고3 ⑧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2. 교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은 학원수업, 과외수업, 인터넷 강좌, 학습지 학습 및 혼자 공부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얼마나 됩니까? (단, 학교 수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정도 ③ 2시간 정도 ④ 3시간 정도 ⑤ 4시간 정도 ⑥ 5시간 이상

3. 평소 취침 시간은 몇 시입니까? (평일 밤 기준)

- ① 9시 - 10시경 ② 10시 - 11시경 ③ 11시 - 12시경 ④ 12시 - 1시경 ⑤ 새벽 1시 이후

B. 다음은 고교 진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4. 본인이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자사고의 경우 아래의 분류표 참조)

- ① 과학고/영재학교 ② 외국어고/국제고 ③ 예술고/체육고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⑤ 구 자립형사립고 ⑥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⑦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⑧ 자율형공립고 ⑨ 일반고 ⑩ 기타

<자율형사립고 분류(가나다 순)>

⑤ 구 자립형 사립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6교)
⑥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김천고 북일고 용인외고 은성고 하늘고 (5교)
⑦ 평준화지역 자사고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미림여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승문고 신일고 안산동산고 양정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현대고 휘문고 (서울, 경기 25개교)

5. 부모님께서 진학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자사고의 경우 위의 분류표 참조)

- ① 과학고/영재학교 ② 외국어고/국제고 ③ 예술고/체육고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⑤ 구 자립형사립고 ⑥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⑦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⑧ 자율형공립고 ⑨ 일반고 ⑩ 기타

6.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공부를 쫓아가려면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7.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수학 수업을 쫓아가려면 학교 입학 전에 미리 어느 정도까지 선행학습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수학·상 ② 수학·하 ③ 수학 I ④ 미적분과 통계기본
 ⑤ 수학 II ⑥ 적분과 통계 ⑦ 기하와 벡터 ⑧ 선행학습 필요 없음.

설문지 - 고등학교 1학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더 나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고교 정책과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정책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유기홍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A. 다음은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입학 전, 중 3시기(2012년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진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명문 대학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에
 ②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③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 학습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④ 주변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부모님, 친지, 교사, 학원 강사 등)
 ⑤ 특정분야에 대한 흥미가 있거나 관련 전공 및 직업 선택을 위해서 (예: 외국어, 과학 관련)
 ⑥ 특별한 이유가 없다. (집과 가까워서, 교복이 마음에 들어서, 급식이 맛있어서 등 포함)
- 중3 당시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별도의 교과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방과후, 보충수업, 예체능사교육 제외)

사교육이란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과학 등 교과와 관련하여 개인과의 및 그룹과의, 보습학원, 어학학원, 입시학원, 전문학원, 온라인 강좌, 학습지 등을 돈을 내고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보충수업은 사교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예 ② 아니요

※ ①에 답했을 경우 아래 2-1번 질문으로. ②로 답했을 경우 3번 질문으로.

- 중3 당시에 어떤 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았습니까? (여러 개 응답 가능)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과학 ⑤ 사회 ⑥ 독서·논술·토론 ⑦ 면접 ⑧ 기타
- 중3 당시에 다닌 사교육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 개 응답 가능)
 ① 개인과의 ② 그룹과의 ③ 보습(내신)학원 ④ 수학전문학원 ⑤ 영어전문학원
 ⑥ 논술학원 ⑦ 특목고대비학원(일반학원 특목고반 포함) ⑧ 인터넷 강의
-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3 2학기 당시에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대략 얼마였습니까?
 ① 15만원 미만 ②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평소 본인이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습니까?
 ① 전혀 받지 않는다. ② 받지 않는 편이다. ③ 받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많이 받는다.
- 현행 고교 입시전형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복잡하다. ② 복잡하지 않다.

C.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 학생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어디에 속합니까?
 ① 서울 강남, 목동, 중계, 경기 안양, 분당, 일산 지역 ② 그 외 지역
- 중3 1학기를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국영수사과 평균석차 백분위 기준)
 ① 최상위권(5% 이내) ② 상위권(6-10%이내) ③ 중상위권(11%-30% 이내) ④ 중위권(31%-60% 이내) ⑤ 중하위권(61%-80% 이내) ⑥ 하위권(81% -100%)

- 빠뜨린 응답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④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⑥ 150만원 이상

24. 중3에서 고1로 가는 겨울방학 당시에 지출한 총 사교육비는 얼마였습니까?

- ① 15만원 미만 ②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⑥ 150만원 이상

3. 고등학교 입학 전에 고등학교 수학에 대해서 미리 공부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 ①에 답했을 경우 3-1번 질문으로. ②로 답했을 경우 4번 질문으로.

3-1. 고등학교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로 미리 공부했습니까?

- ① 수학·상 ② 수학·하 ③ 수학 I ④ 미적분과 통계기본 ⑤ 수학 II
⑥ 적분과 통계 ⑦ 기하와 벡터 ⑧ 선행학습 하지 않음.

B. 다음은 고등학교 입학 후, 현재 고1 시점(2013년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4. 현재 어떤 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과학 ⑤ 사회 ⑥ 독서·논술·토론 ⑦ 면접 ⑧ 기타 ⑨ 안 받고 있다.

※ ①~⑧에 답했을 경우 4-1번 질문으로. ⑨에 답했을 경우 7번 질문으로.

4-1. 어떤 유형의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개 응답가능)

- ① 개인과외 ② 그룹과외 ③ 보습(내신)학원 ④ 수학전문학원 ⑤ 영어전문학원
⑥ 논술학원 ⑦ 특목고대비학원(일반학원 특목고반 포함) ⑧ 인터넷 강의

4-2. 일주일 평균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④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⑤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⑥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⑦ 12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⑧ 14시간 이상

4-3. 평소 하루의 사교육을 마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 오후 5시 이전 ② 오후 5시 - 저녁 7시 이전 ③ 저녁 7시 - 밤 9시 이전
④ 밤 9시 - 11시 이전 ⑤ 밤 11시 이후

4-4. 일주일에 사교육을 평균 며칠이나 받습니까?

- ① 1일 ② 2일 ③ 3일 ④ 4일 ⑤ 5일 ⑥ 6일 ⑦ 7일

4-5. 학원, 온라인 강좌, 과외, 학습지 등 포함하여 사교육비로 대략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합니까? (예체능 및 컴퓨터, 학교 방과후 교육비는 제외)

- ① 15만원 미만 ② 1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③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④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⑤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⑥ 150만원 이상

4-6. 현재 받고 있는 사교육에서 본인은 어느 수준에 맞추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1 ④ 고2 ⑤ 고3 ⑧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4-7. 공인어학인증시험(토익, 토플, 텡스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4-8. 현재 받고 있는 수학 사교육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 ① 수학·상 ② 수학·하 ③ 수학 I ④ 미적분과 통계기본 ⑤ 수학 II
⑥ 적분과 통계 ⑦ 기하와 벡터 ⑧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습 분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라 매우 만족한다. ② 어느 정도 만족한다.
③ 조금 불만족스럽다. ④ 매우 불만족스럽다. ⑤ 아무 상관이 없다.

6.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종류(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로 인해 차별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C.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7. 성별: ① 남 ② 여

8.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자율고의 경우 아래의 분류표 참조)

- ① 과학고/영재학교 ② 외국어고/국제고 ③ 예술고/체육고 ④ 특성화고/마이스터고
⑤ 구 자립형사립고 ⑥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⑦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⑧ 자율형공립고
⑨ 일반고 ⑩ 기타

<자율형사립고 분류(가나다 순)>

⑤ 구 자립형 사립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6교)
⑥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김천고 북일고 용인외고 은성고 하늘고 (5교)
⑦ 평준화지역 자사고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미림여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승문고 신일고 안산동산고 양정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현대고 휘문고 (서울, 경기 25개교)

9. 중3 1학기를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국영수사과 평균석차 백분위 기준)

- ① 최상위권(5% 이내) ② 상위권(6-10%이내) ③ 중상위권(11%-30%이내)
 ④ 중위권(31%-60% 이내) ⑤ 중하위권(61%-80% 이내) ⑥ 하위권(81% -100%)

- 빠뜨린 응답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지 - 일반고 교사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더 나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고교 정책과 관련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은 정책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유기홍 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1.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일반고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2. 지난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인한 일반고 변화 중 실제로 본인이 느끼시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
 ② 수업하기가 힘들어졌다.
 ③ 대입 진학결과가 안 좋아졌다.
 ④ 신입생의 중학교 때 성적이 하락했다.
 ⑤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현행 고교 입시 전형은 시기별로 전기, 후기로 나누어져 있고 후기에서도 우선 선발하는 자율형 공립고와 중점학교가 있고 마지막에 일반고가 학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별로 다르게 뽑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공정하다 ② 공정한 편이다. ③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공정하지 않다.

4.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

-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필수이수단위 축소 및 과목별 증감 범위 확대, 교내 진로직중과정 개설 및 중점학교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직업교육 대안학교 신설 및 일반고 직업반 내실화, 일반고·특성화고간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일반고 재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3) 일반고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 강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증원 등 일반고 교육여건 개선, 교원 및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자공고를 일반고 선도모델로 활용, 자사고 성과평가 및 상시전환체제 구축, 설립취지 구현을 위한 자사고 자율권 확대, 자사고 운영 및 학생선발 방식 개선, 특목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②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③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5. 지난 8월 정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후, 자율형 사립고 측에서는 일반고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동의하는 편이다. ③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④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6. 일반고가 개선되려면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①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
 ② 교육과정의 자율성 증대
 ③ 고등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입시 시기를 통일하는 것
 ④ 고등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선발 방법을 통일하는 것
 ⑤ 특목고(과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⑥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⑦ 기타 _____

7. 자율형 사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8.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9.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지 않다.

10. 현재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있다고 가정한다면, 선생님의 자녀가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 ① 과학고/영재학교 ② 외국어고/국제고 ③ 예술고/체육고 ④ 특성화고/마이 스테고
 ⑤ 구 자립형사립고 ⑥ 비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⑦ 평준화지역 자율형사립고 ⑧ 자율형공립고
 ⑨ 일반고 ⑩ 기타

<자율형사립고 분류(가나다 순)>

⑤ 구 자립형 사립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포항제철고 하나고 현대청운고 (6교)
⑥ 비평준화지역 자사고	김천고 북일고 용인외고 은성고 하늘고 (5교)
⑦ 평준화지역 자사고	경문고 경희고 대광고 대성고 동성고 미림여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승문고 신일고 안산동산고 양정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장훈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현대고 휘문고 (서울, 경기 25개교)

11. 선생님의 재직 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30년 미만 ⑥ 30년 이상

- 빠뜨린 응답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